##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68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3,24-4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3,24-43

복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비유들을 듣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관해 전해 주십니다. 각기 전해지는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관한 해답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이들은 장차 하느님을 드러내고 구원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반대하고 유혹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성숙했을 때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아무것도 들어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것을 바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밀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일단 그것을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서 해로운 것을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은 적어도 마지막까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하늘나라를 드러내고 거기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겨자씨며 누룩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토로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죽은 이들의 나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살아있는 이들의 나라이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장차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수원교구 7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나훔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집필시기**

유다 엘코스 출신 예언자로서 기원전 7세기 중엽,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테베를 침략하였던 기원전 663년부터 니네베가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함락되기까지의 기간에 활동하였습니다.

**선포 내용**

나훔은,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혹한 죄를 저지르고 약소민족을 온갖 형태로 억압하고 협박하며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던 강대국 아시리아에 정의로우신 주 하느님의 징벌이 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착취자들, 억압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악의 온상인 예루살렘에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카는 그 당시의 사회적, 윤리적, 신앙적 죄악을 물리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나훔서의 구성**

1.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1,1-8)
2. 유다와 니네베에 내린 신탁(1,9-2,3)
3. 니네베의 패망(2,4-3,19)

**나훔의 예언은 주로 니네베에 관한 것입니다. 니네베는 고대 근동의 사자로 불리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기원전 612년에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나훔서는 바로 이 니네베에 닥칠 몰락을 선포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근동 지방의 종주국으로서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정복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살인과 폭행과 강탈, 그리고 전쟁 뒤에 이어지는 억압과 폭정을 뜻합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많은 약소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 공지사항

**-소공동체 모임을 더욱 활성화합시다. 예수님 자신께서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시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공동체 모임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을 서로 허물없이 나누고 격려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탱하게 해 주는 작은 모임터이기 때문입니다.**

**-예비신자 모집에 힘쓰고 교리와 미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합시다.**

##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16,13-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확신에 찬 믿음의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용히 성찰하고, ‘당신은 진정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강한 신앙을 다짐해 봅시다.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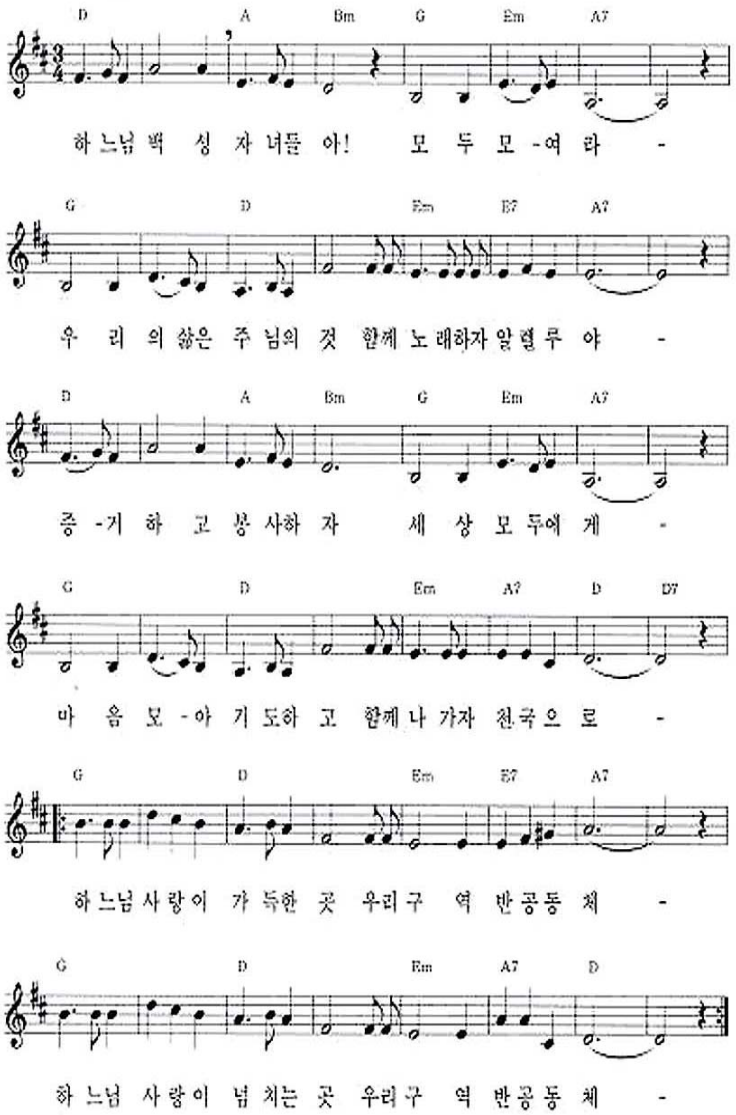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